

The Worth of Worship  
~Palm Sunday Message~

Bo Stern-Brady  
March 24, 2024

예배의 가치  
종려나무 주일 메시지  
보 스텐-브레이디 목사  
2024년 3월 24일

Last week, in preparation for Easter, we looked at the the first verses of the gospel of John and talked about how John painted a picture of wonder over the person and purpose of Jesus in our world. He is love writ large across the stage of human history.

Now, as we make our way into holy week, we're going to move deeper into John's gospel - let's keep our eyes peeled for all the ways John wants us to understand the life of His friend, Jesus. Let's also listen for the questions John will pose to us within the text - questions about our own lives, our own purpose and the condition of our hearts.

We're headed to John 12, but I want to take a little detour first and look at an interesting trail through the book of John:

지난 주, 부활절 준비를 위해 요한 복음서의 첫 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인격과 목적에 대한 놀라움을 그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 세상에 있어서 사랑의 대형 화면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주간으로 진입하는 동안, 우리는 요한 복음서로 더 깊게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인 그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요한의 모든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귀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그 질문들은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의 목적,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12**장으로 향하고 있지만, 먼저 요한 복음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John 2:4 Jesus' mom, Mary, says "they've run out of wine." And Jesus answers her: **Woman, why do you involve me?" Jesus replied. "My hour has not yet come." John 2:4**

요한복음 **2:4**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하였습니다. "와인이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어찌하여 너와 내가 연관시키나? 내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 요한복음 **2:4**

John 7:30 Jesus teaches in the temple courts and makes a lot of people really mad. It says this: **At this they tried to seize him, but no one laid a hand on him, because his hour had not yet come. John 7:30**

요한복음 **7:30** 예수님은 성전 광장에서 가르치시던중 많은 사람들을 매우 화나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한 것은 그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었습니다."

John 8:20 **"You do not know me or my Father," Jesus replied. "If you knew me, you would know my Father also." He spoke these words while teaching in the temple courts near the place where the offerings were put. Yet no one seized him, because his hour had not yet come. John 8:20**

요한복음 8:20 "너희는 나와 나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 근처 성전 광장에서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These verses help us understand that what's happening on these pages is entirely intentional. God is never NOT in control of the circumstances of His son's trip to and through humanity. So, the events we're about to read about in a moment - were always inside His plan. Since the moment humanity fell and needed rescue. From the moment Eve chose badly...from the moment the children of Israel turned away to other gods... from the moment Moses hit the rock instead of speaking to it... from the moment Samson sold his secrets to Delilah...from the moment Israel asked for a king to rescue them...from the moment David saw Bathsheba from the moment God's people fell into captivity to the Babylonians...and the Persians...and the Greeks...and the Romans....God has *always* had a plan. The stage has been set for their redemption, for *our* rescue. And I believe God the Father is letting Jesus, His son, in it real time as we watch him walk through this world-changing week.

이 성구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전적으로 의도된 것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인류를 통해 여행하는 동안 상황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읽게 될 사건들은 항상 그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인류가 빠져나갈 필요가 있는 순간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이브가 잘못 선택한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간 순간까지, 모세부터 삼손, 왕들부터 포로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구원을 향한 사건을 조정해 왔습니다. 이 중요한 한 주를 지나가는 예수를 지켜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를 이 세상을 바꿀 주에 따라 지켜보는 동안 그의 아들 예수를 실시간으로 관여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So, let's jump into our actual text and see what John and Jesus want to say to us: 그럼 이제 실제 텍스트로 들어가서 요한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Jesus came to Bethany, where Lazarus lived, whom Jesus had raised from the dead. Here a dinner was given in Jesus' honor. Martha served, while Lazarus was among those reclining at the table with him. Then Mary took about a pint of pure nard, an expensive perfume; she poured it on Jesus' feet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John 12:1-3.**

유월절 여섯 일 전에 예수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신 라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위해 만찬이 열렸습니다. 마르다가 시중을 드는 동안 라사로는 예수와 함께 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고가향 순향유 한 향아리를 가져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향수의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 요한복음 12:1-3

Mary is demonstrating how much Jesus is worth to her. Everything. What isn't anywhere in this story? Any evidence that Jesus asked her for this. She just pours it out. She wastes her savings on worship, on Jesus. Other gospels tell us she poured it over his head as well. Not only is this an extravagant waste of perfume - it's TOO MUCH. (sitting in a restaurant one booth away from someone wearing too much perfume and I had to leave. I couldn't taste my food. This would've been an overwhelming fragrance and it would have lasted a long time.)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누락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것을 요청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냥 그것을 붓습니다. 그녀는 예배,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소비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그녀가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로도 붓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보기에 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과도한 순향유의 낭비입니다. (한 레스토랑에 앉아 한 칸 떨어진 자리에 너무 많은 향수를 뿌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강한 향기였고 오랜 시간 동안 남았을 것입니다.)

**But one of his disciples, Judas Iscariot, who was later to betray him, objected, "Why wasn't this perfume sold and the money given to the poor? It was worth a year's wages." He did not say this because he cared about the poor but because he was a thief; as keeper of the money bag, he used to help himself to what was put into it. John 12:4-6**

그러나 예수님을 나중에 배신할 유다 이스카리옷 중 한 사람이 이에 반대했습니다. "왜 이 향수를 팔지 않고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냐고요? 이것은 일년치 임금과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습니다.

돈주머니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넣은 것을 스스로 챙겨 먹었습니다. - 요한복음

#### **12:4-6**

He wanted it for himself. He's a weird worship thief. There are lots of them out there for me. Sometimes they're actual people who think the visible worship of an invisible God looks absurd. More often, they're less obvious. Fear is a worship thief - "I can't afford to give this." Doubt is a worship thief, "I'm not sure God has earned this." Busy is a worship thief, "I don't have time to waste on this."

그는 자신을 위해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이상한 예배 도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실제 사람들이 실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예배가 터무니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자주, 그들은 덜 명백합니다. 두려움은 예배 도둑입니다. "이런 것을 줄 여유가 없어요." 의심은 예배 도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신하지 않아요." 바쁨은 예배 도둑입니다. "이것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Leave her alone," Jesus replied. "It was intended that she should save this perfume for the day of my burial. You will always have the poor among you,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John 12:7-8**

"가만히 두어라;"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장례 때를 위해 그녀가 이 향수를 아꼈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너희는 항상 나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 요한복음 12:7-8

Now...we see the events beginning to ramp up. ("Leave her alone" - Jesus uses the word here that means "go away" or "you're dismissed".) This pouring out of the perfume, turns out, was not just a desire of Mary's heart...Jesus says it was "intended." Intended = purposed with an end in mind. From the very beginning, it was always intended that Mary would pick up this jar of oil and anoint her living Lord for His death. Not just that she would, but that it would be a ridiculous amount. And she doesn't grab a towel, she uses her hair. It's an act of such deep humility and submission. She doesn't know it's for his death. All the events of holy week seem to be set in motion by this one personal, intimate act of worship. This act is going to be contrasted by another in just a minute - and that one is loud and chaotic and visually stunning - but this particular moment, this act of holy sacrifice, of wasting everything on the absolute belief that Jesus is who He says he is, of stooping low and offering everything from this place of reverence and humility ...is breathtaking. It makes me wonder: Where does my worship lead? Is there something within our worship that is breaking strongholds or accomplishing a purpose that we cannot see? (Also, I really love the idea of facing the worship thieves in my life with a simple: "You're dismissed.")

이제... 사건들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두어라" - 예수님이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사라져" 또는 "너는 해고됐어"라는 뜻입니다.) 이 향수를 붓는 것은, 결국, 의 마음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을 향한 목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마리아가 이 기름 항아리를 들고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 기름을 발라줄 것이라는 것은 항상 의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엄청난 양임이 의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건을 집어들지 않고 머리칼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겸손과 복종의 행위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거룩한 주간의 모든 사건들이 이 한 가지 개인적이고 깊은 예배 행위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행위는 곧 다른 행위와 대조될 것입니다 - 그것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시각적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 그러나 이 특별한 순간, 이 거룩한 희생의 행위, 예수님이 자신이 말한 대로 실제로 그의 것인지를 믿고 모든 것을 낭비하는 행위, 낮아져서 경외와 겸손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은 숨을 멎출 만큼 아름답습니다. 나는 궁금해집니다: 내 예배는 어디로 이끌리고 있나요? 우리의 예배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강력한 것을 깨는 것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있는가요? (또한, 내 삶에서의 예배 도둑들에게 "너는 해고됐어"라고 간단히 말하는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Meanwhile a large crowd of Jews found out that Jesus was there and came, not only because of him but also to see Lazarus, whom he had raised from the dead. So the chief priests made plans to kill Lazarus as well, for on account of him many of the Jews were going over to Jesus and believing in him.**

한편, 큰 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러 온 것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다시 살린 라사로도 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라사로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라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며 그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The next day the great crowd that had come for the festival heard that Jesus was on his way to Jerusalem. They took palm branches and went out to meet him, shouting,**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is the king of Israel!”**

**Jesus found a young donkey and sat on it, as it is written:**

**“Do not be afraid, Daughter Zion;  
see, your king is coming,  
seated on a donkey’s colt.” John 12:9-15**

다음 날 축제를 위해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야 팜 나무 가지들 가져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가서 소리치며 말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찾아타셨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딸 시온아;

네 왕이 어린 나귀 새끼에 앉아 오시는 것을 보라." - 요한복음 **12:9-15**

Great crowd = Passover. This is the time when all the Jews and lots of others pile into Jerusalem to celebrate Passover (explain). During this one week Jerusalem swelled from 40,000 people to 240,000. It was crazy and chaotic and it made the Romans nervous...that many people together in one place could get ideas of independence and start to fight back. They filled the city with soldiers and Pilate - who ruled Jerusalem by proxy for the empire - rode in ceremoniously with thousands of soldiers and horns blaring and banners waving.

대규모인 무리 = 유월절. 이것은 모든 유대인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리는 시기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은 **4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급속히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미친 듯하고 혼란스럽고, 로마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독립을 고민하고 반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군인들로 가득 채우고, 제국을 대표하여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핏못도 수많은 군인과 높은 소리의 뿔 소리와 함께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깃발을 흔들면서 행진했습니다.

Jesus, however...donkey. Palm branches. (Psalm 118) "Hosanna!" Means "Save us! Rescue us!" This is also worship, even if it seems very needy. Worship tells us who God is and it also helps us clearly understand who we are. We are those who need Him. We are hopeless and helpless without Him. I only say "Rescue me!" To someone I think can. I only say "Rescue me!" When I know I cannot possibly rescue myself.

This parade - as strange and humble as it may seem - is another domino. It's another event that keeps adding pieces to the puzzle about who Jesus is. Zechariah said the Messiah would ride into Jerusalem on a donkey. John says: Here's your proof. But also, he's quick to add that he and his friends did not get it...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종려 나무 가지. (시편 118편) "호산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를 구출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필요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 없이는 절망적이고 무력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결코 구할 수 없다고 확신할 때만 "나를 구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 퍼레이드 - 이상하고 겸손해 보이기 는 하지만 - 또 다른 도미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퍼즐의 조각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다른 사건입니다. 사카리야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와 그의 친구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빨리 덧붙입니다...

**At first his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all this. Only after Jesus was glorified did they realize that these things had been written about him and that these things had been done to him.**

처음에 그의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후에야 그들은 이것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었고 이것들이 예수님에게 행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Now the crowd that was with him when he called Lazarus from the tomb and raised him from the dead continued to spread the word. Many people, because they had heard that he had performed this sign, went out to meet him. So the Pharisees said to one another, "See, this is getting us nowhere. Look how the whole world has gone after him!" John 12: 16-19**

라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실 때 그와 함께한 무리가 여전히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을 듣고 나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체 세상이 그를 따라가고 있다!" - 요한복음 12:16-19

In the moment, all of this must have seemed exciting and wonderful to the disciples. Finally, the whole world is seeing what they see. The whole world is starting to believe that Jesus is who they've found him to be and that means His rule and reign over Israel must be right around the corner, yes? But Jesus knows better. Jesus sees what's happening, he hears the cries of worship, he feels the breeze from the palm branches as they wave...but less than 24 hours later, he would also still be able to smell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that was poured out over him. He has a constant reminder that he has been anointed for death and in a few days, many in this crowd will go from crown him to kill him.

당시에는 이 모든 일이 제자들에게 흥미롭고 훌륭해 보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전 세계가 그들이 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예수님이 그들이 발견한 그대로임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시간이 바로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며, 예배의 외침을 듣고, 손에서 부는 손수레의 바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에게 부은 향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위해 기름을 바르심을 상기시키는 상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일 후에, 이 무리 속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섬기는 것에서 그를 죽이기로 갈 것입니다.

He knows that we are fickle and finicky and frail. He knows that sometimes our worship sticks with us and sometimes it doesn't...but it always sticks with him. He goes into holy week, anointed for the job...anointed by worship and sacrifice and the love of those who know how good He is. At this same time, good Jews would be choosing the lamb to sacrifice on Passover - and Jesus rides into their midst not as triumphant ruler, but as the voluntary lamb that would be slain for us all.

그분은 우리가 변덕스럽고 까다로우며 연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와 함께 남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그분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주간에 들어가며, 이 일을 위해 기름칠되었습니다... 예배와 희생,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기름칠되었습니다. 동시에 좋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제물로 드릴 양을 선택할 것입니다 -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에 왕으로서의 승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죽임을 당할 자발적인 어린 양으로서 오십니다.

**Now there were some Greeks among those who went up to worship at the festival. They came to Philip, who was from Bethsaida in Galilee, with a request. "Sir," they said, "we would like to see Jesus." Philip went to tell Andrew; Andrew and Philip in turn told Jesus.**

유월절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리사이아 벧새다 출신인 갈릴리 사람인 필립에게 다가와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필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안드레와 필립은 다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The disciples are finally the cool kids with the backstage VIP passes. Even the Greeks want to meet their guy! So they come to Jesus - Hey, people are asking for you! I think they might want to believe in you! I just can't get over the difference in how this moment plays out for the disciples and how it plays out for Jesus.

제자들은 마침내 백스테이지 **VIP** 패스를 가진 멋진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인들도 그들의 친구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믿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순간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흘러가는지와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흘러가는지의 차이에 대해 놀라워할 수가 없습니다.

**Jesus replied,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Very truly I tell you,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John 12:**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인자의 시대가 오고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한 곧 한 알이 될 뿐이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 요한복음 **12:**

When they ask him about meeting the Greeks, Jesus says, "The hour has come." Remember the wedding and the wine? The hour has not come. The hour has not come. The hour has not come. And now. With everything up and to the right. With the smell of worship on his skin: *The hour has come.*

그들이 그리스인을 만나고 싶다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이르렀다." 결혼식과 포도주를 기억하세요?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의 향기가 그의 피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The last domino is about to fall. The disciples may think that means the hour has come to assume his place on the actual throne, but he gives them a clue: Unless a seed falls and dies...it cannot bear fruit. Next week, on Easter Sunday, we're going to pick up at exactly that verse. The seed that fell and died, so that we could live. We'll look at the garden He is growing and our place inside it.

마지막 도미노가 곧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실제 왕좌에 자리를 잡는 때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그들에게 단서를 주었습니다: 씨앗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 부활 성탄절인 일요일에는 정확히 그 구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씨앗이 떨어지고 죽은 것. 그가 재배하고 있는 정원과 우리의 위치를 살펴볼 것입니다.

But for today, we worship. We pour out our praise on Him, to Him, for the beauty of His gift to us.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here in this room, for the gift that he gave and the price that he paid. For the things we know about Him and the things we don't. For the beauty that He is and the beauty that He does.

하지만 오늘은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찬양을 올립니다, 그에게, 우리에게 내린 그 아름다운 선물을 위해. 인자의 시대가 오려고 하였다... 여기 이 곳에서, 그가 주신 선물과 그가 치르신 대가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것들과 모르는 것들을 위하여. 그분이 있는 아름다움과 행하는 아름다움을 위하여.